한투 라.디.오
(Last Week, This Week, Today)

Key words: 무역 갈등+셧다운

금주 preview

- 주말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심화되며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금주 CPI/PPI, 제조업, 소매판매/주택 지표 발표 앞두고 셧다운 부담도 심화

- 매크로 지표 발표 지연 가능성 높아진 가운데 연방 공무원 고용 불확실성도 확대. 경기둔화 우려 확산되며 연준 대응 경계도 심화 예상

- 금주에는 대형 금융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어닝 시즌도 시작. 매크로 불확실성 지속되고 있는 만큼 숫자로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 강해질 전망

- S&P500 지수는 구조적 하락세 지속되기 보다 일시적 조정 후 반발 매수세 유입 예상. 공급망 불확실성 장기화는 부담이나, 트럼프 행정부 차원의 대응 조치 발표 시 펀더멘털로 관심 이동 예상되기 때문

- 방어주 중에서도 관세 부담 제한적이고, 중장기 실적 개선 여력 높은 업체들로 대응 필요. 대표 배당주와 금 관련 업체들이 해당

- 반발 매수세 유입 대응 시에도 APEC 회의와 10월 FOMC 회의 앞두고 관세/경기 영향 제한적인 업체 선별 필요

금주 투자 아이디어(ETF)

① **대형** IT, VGT – 대표 IT 업체들로 구성. 관세 영향 크게 반영되는 일부 기업이 아니라 반도체/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업종의 대표 기업들이 포함

② **대표 배당**, SCHD – 관세 부담 제한적인 내수 소비재 업체 중에서도 실적 양호하고 배당 매력 높은 업체 비중 높음. 진입 부담 낮은 소비재 업체 중에서도 실적 양호한 업체들이 상위권에 위치

③ **금**, RING – 금 채굴 관련 업체들로 구성. 국가간 갈등 심화되며 안전자산 투자 심리 지속 시 대응 가능. 갈등 완화 시에도 높아진 금 수요 대응 가능

④ **핀테크**, ARKF – 가상 화폐 규제 완화 기대감 반영 업체 비중 높음. 관세 부담 제한적. 저가 매수세 유입 시 부각 예상

최보원
bochoi@koreainvestment.com

한국투자증권은 당사 고객 및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맺은 법인에게만 리서치 리포트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사전 승인 없이 리포트를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및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말/주간 증시 review

[주말 증시]

- S&P500, 나스닥 지수는 전일대비 2.7%, 3.6% 하락.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심화되며 위험자산 투자심리 위축. 전일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강화에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로 맞대응. 공급망 불확실성 심화되며 단기 반등 컸던 IT/반도체/장비 기업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 출회

-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지속됐고, 2 년물, 10 년물 국채금리 동반 하락했으나, 관세발 경기 불확실성 심화되며 VIX 지수가 장중 22.0pt 를 돌파. 미시간대 지표는 우려보다 양호한 수준으로 발표됐으나, 무역 갈등 심화에 따른 경기 둔화 가능성 높아지며 미국 주요 지수 낙폭 확대. IT/반도체 기업들의 공급망 불확실성 재점화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일대비 6.3% 하락

- 업종별로는 S&P500 지수 내 필수소비재 업종이 전일대비 0.3% 상승했으나, 나머지 10 개 업종이 모두 하락 마감.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재확산되며 단기 반등 컸던 IT, 경기소비재 업종이 전일대비 4.0%, 3.3% 하락. 경기 불확실성 심화되며 에너지 업종도 2.8% 하락. 커뮤니케이션 업종은 IT 업체 대비로는 낙폭 제한적이었으나, 전일대비 2.3% 하락. 산업재, 금융 업종도 각각 2.2% 씩 하락

[주간 증시]

- S&P500, 나스닥 지수는 전주대비 2.4%, 2.5% 하락. 셧다운 장기화에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지속되고, 대형주 실적 개선 기대감 높아지며 상승세 이어졌으나, 미국과 중국의 갈등 심화되며 주후반 하락 전환

- 관세/경기 불확실성에 더해 공급망 부담까지 확대되며 위험자산 투자심리 위축. 단기 반등 컸던 IT/성장주/경기민감주 중심의 차익실현 매물 출회

주말 이슈 점검

이슈 #1. 미-중 무역 갈등 부담 심화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1일부터 중국을 대상으로 100% 추가 관세 부과 계획 발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응하는 조치로 평가.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도 실시할 계획

-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계획을 철회할 가능성 시사. 양국의 갈등 심화 양상 이어지며

- 중국은 일부 희토류 수출 시 중국 정부가 발급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허가증이 필요하다는 정책을 발표. 해외에서 제조된 희토류 영구자석 재료와 타겟 소재, 중국이 원산지인 희토류 채굴, 제련, 분리 기술을 사용해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

- 미국 선박을 대상으로 별도의 입항료를 부과할 계획도 발표. 퀄컴의 자동차 반도체 설계회사인 오토톡스 인수에 대해서도 반독점 조사를 실시할 계획

- 현재 미국의 대중국관세는 평균 55% 수준. 추가적인 100% 관세 반영 시 평균 155% 수주의 관세 적용될 것으로 예상

이슈 #2. 미시간대 지표

- 미시간대 기대인플레이션은 4.6%로 이전 발표치 대비 낮은 수준에 그쳤고,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은 3.7%로 이전과 동일한 수준에 그침

-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는 55.0pt로 예상치였던 54.1pt와 이전치였던 55.1pt를 모두 상회. 경제 상황지수가 61.0pt로 예상치였던 60.0pt 대비 양호했기 때문. 반면 기대지수가 51.2pt로 이전치와 예상치였던 51.7pt를 하회

이슈 #3. 연준 정책 인하 기대감은 지속

- 10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지속. 10월 25bp 인하 확률은 97.8%까지 높아졌고, 12월 추가 25bp 인하 확률도 97.8%까지 확대. 2026년 3월 추가 인하 확률은 50.5%까지 높아졌고, 2분기 추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확대(FedWatch)

- 연준의 정책 방향성 지속 기대감은 이어졌으나, 무역갈등 부담 심화됐고, 셧다운 장기화되며 경기 불확실성 재확산. 2년물, 10년물 국채금리 동반 하락했으나, 위험자산 투자심리 위축되며 미국 주요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

이슈 #4. 나토 방위비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비 인상 거부 국가를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 강조. 지난 6월 나토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군사비 지출 규모를 GDP의 5% 수준으로 높일 계획에 합의했으나, 일부 국가들이 반대. 대표적인 국가는 스페인

-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의 방위비 지출 가능성 높아지는 가운데, 국가간 갈등 심화 부담도 지속. 나토 국가 내에서도 의견 나뉘는 가운데 유럽 주요국들의 재정 지출 부담도 지속

이슈 #5. 미국 셧다운 영향

- 미국 셧다운이 10일 넘게 이어지며 연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력감축 조치가 시작. 러스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규모가 상당할 가능성을 시사

- OMB가 법원에 제출한 문서 기반으로는 최대 4,000명 수준될 것으로 예상. 교육부, 재무부, 국토안보부, 보건복지부, 환경보호청 직원 등이 대상

- 통상적으로 셧다운에 돌입하면 무급 휴직 이후 복귀 시 지연된 임금을 받는 구조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셧다운을 통해 공무원을 대거 해고할 계획을 시사해 온 바 있음

- 미국 셧다운 이후 약 75만명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휴직에 돌입할 것으로 추정되며 상원과 하원은 모두 휴회중.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견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셧다운 장기화 우려 심화

이슈 #6. 반도체/AI 관련주 부진

- 공급망 불확실성 심화되며 대표 반도체 기업들이 부진.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은 전일대비 4.9%, 5.9% 하락. 단기 반등 상대적으로 컸던 AMD, 마이크론도 7.7%, 5.6% 하락. 퀄컴, 램리서치, 암 홀딩스도 7.3%, 6.8%, 9.3% 하락하는 등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구성하는 전 종목이 전일대비 하락

- 대형 성장/AI 관련주도 하락.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2.2%, 3.5% 하락했고, 대표 커뮤니케이션 기업인 알파벳과 메타도 2.1%, 3.9% 하락. 대표 경기소비재 업체인 아마존과 테슬라도 전일대비 5.0%, 5.1% 하락하며 시장 수익률 하회. 팔란티어도 5.4% 하락하는 등 단기 반등 컸던 업체 중심의 차익실현 매물 출회. 오라클도 1.4% 하락

이슈 #7. 가상화폐 관련주도 부진

- 비트코인 가격 하락하며 관련 업체들도 상승분 일부 반납. 로빈후드와 코인베이스가 8.9%, 7.8% 하락. 스트래티지(마이크로스트래티지), 마라홀딩스도 4.8%, 7.8% 하락. 단기반등 컸던 IREN도 6.4% 하락

이슈 #8. 대표 배당주 양호

-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에서는 펩시코가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 발표 이후 3.7% 상승. 반사 수혜 반영되며 코카콜라도 1.0% 상승. 대표 필수소비재 업체인 월마트도 0.1% 상승

- AT&T, T-모바일, 필립모리스가 0.2%, 1.1%, 2.3% 상승하는 등 대표 배당주는 상대적으로 양호

[주간 주요 데이터 및 일정 점검]

주간 수익률(지수)

닛케이 +5.1%
영국 -0.7%
유로스톡스50 -2.1%
MSCI 선진국 -2.3%
S&P500 -2.4%
나스닥 -2.5%
다우 -2.7%
러셀2000 -3.3%

주간 수익률(S&P500 업종)

유틸리티 +1.4%
필수소비재 +0.6%
헬스케어 -1.9%
커뮤니케이션 -2.2%
IT -2.5%
산업재 -2.9%
금융 -3.0%
소재 -3.1%
부동산 -3.3%
경기소비재 -3.3%
에너지 -4.0%

주간 수익률 Top5/Bottom5(S&P500)

Top5: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30.5%), 델 테크놀로지스(+7.0%), 아리스타 네트웍스(+5.9%), 넷플릭스(+5.8%), 펩시코(+5.7%)

Bottom5: 앱러빈(-16.5%), 씨게이트 테크놀로지 홀딩스(-15.2%), 스탠리 블랙 앤 데커(-14.6%), D.R. 호턴(-13.4%), Dow Inc(-13.3%)

주간 52주 최고/최저 종목 Top5(S&P500, 시가총액순)

52주 신고가 종목: 엔비디아(NVDA), 존슨앤드존슨(JNJ),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AMD),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스(IBM), 캐터필러(CAT) 등

52주 신저가 종목: 프록터 앤 갬블(PG), 컴캐스트(CMCSA), 파이서브(FI), 콜게이트-팜올리브(CL), 원오케이(OKE) 등

지표 발표 일정(한국시간)

[미국]

*10/13 (월) : IMF 미팅(13~18일), 8월 건설지출, OPEC 월간 보고서 등

*10/14 (화) : 9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등

*10/15 (수) : MBA 모기지 신청건수, 10월 뉴욕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9월 CPI/근원 CPI 등

*10/16 (목) : 9월 소매판매, 9월 PPI/근원 PPI, 10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활동지수,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 10월 NAHB 주택시장지수 등

*10/17 (금) : 9월 주택착공건수, 9월 건축허가건수 예비치, 9월 광공업생산 등

미국 예상 실적발표 일정(현지시간)

*10/13 (월) : 패스널(FAST) 등

*10/14 (화) : 제이피모간체이스(JPM), 존슨앤드존슨(JNJ), 웰스파고 & 컴퍼니(WFC), 골드만삭스 그룹(GS), 씨티그룹(C) 등

*10/15 (수) : 뱅크오브아메리카(BAC), ASML(ASML), 모간스탠리(MS) 등

*10/16 (목) : 마시 앤 맥레넌 컴퍼니(MMC), U.S. 뱅코프(USB), 뉴욕 멜론 은행(BK), 트래블러스 컴퍼니스(TRV), 킨더 모건(KMI), CSX(CSX) 등

*10/17 (금) : 아메리칸 엑스프레스(AXP), 트루이스트 파이낸셜(TFC), 슐럼버거(SLB) 등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25년 10월 13일 현재 상기 종목의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리포트의 내용 일부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리포트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상기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리포트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리포트는 당사 리서치본부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리포트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리포트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리포트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본부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